

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• 폭행/상해범죄의 50.4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45.4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1.8%), 직장동료/친구(8.1%), 애인(5.5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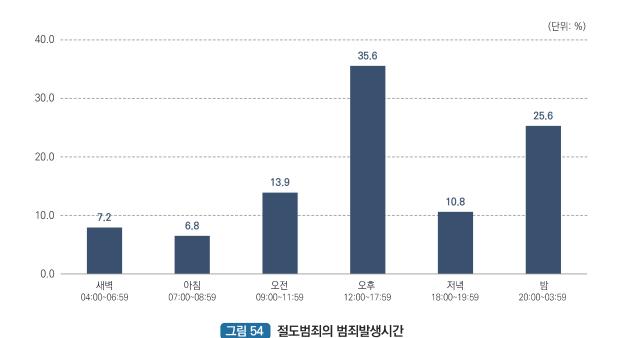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. 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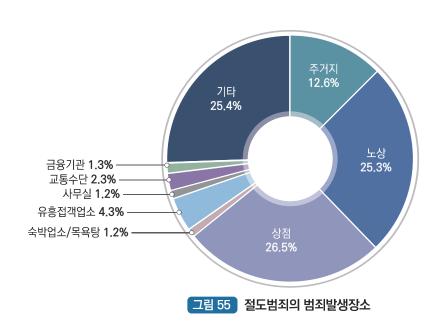
1) 범죄발생시간

• 2023년 총 189,942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35.6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25.6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

2) 범죄발생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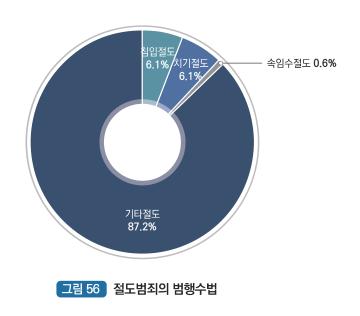
○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25.4%)를 제외해보면, 상점이 26.5%로 가장 많았고, 이외에도 노상 25.3%, 주거지 12.6% 등의 순이었다.





3) 범행수법

•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87.2%)를 제외해보면, 치기절도¹⁷가 6.1%(11,537건)로 가장 많았고, 침입절도 6.1%(11,494건), 속임수절도¹⁸ 0.6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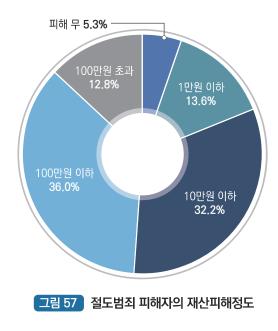


4) 재산피해정도

•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6.0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32.2%, 1만원 이하가 13.6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1.9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¹⁷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¹⁸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
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69.5%가 남성이며, 30.5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1세 이상으로 전체의 30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18세 이하(16.5%), 51세~60세(16.3%) 등의 순이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는 18세 이하, 19세~30세, 31세~40세의 연령대에서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

표 34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- Й	
	남성	여성	711	
18세 이하	14,203(20.2)	2,500(8.1)	16,703(16.5)	
19세-30세	9,969(14.2)	3,471(11.3)	13,440(13.3)	
31세-40세	7,829(11.2)	2,982(9.7)	10,811(10.7)	
41세-50세	8,667(12.3)	3,848(12.5)	12,515(12.4)	
51세-60세	10,871(15.5)	5,546(18.0)	16,417(16.3)	
61세 이상	18,666(26.6)	12,410(40.3)	31,076(30.8)	
계	70,205(100.0)	30,757(100.0)	100,962(100.0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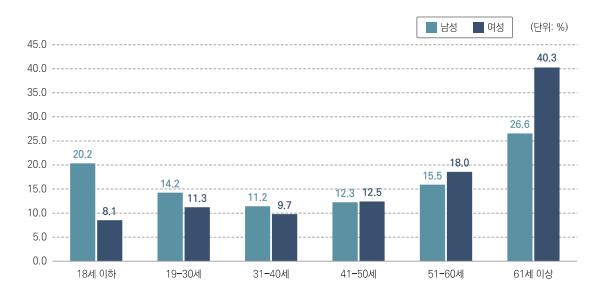


그림 58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58.2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31.6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3.9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.

표 35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 여부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전과 여부	소년범 여부		741
	소년범	성인범	계
전과없음	10,961(68.4)	27,013(36.1)	37,974(41.8)
전과있음	5,071(31.6)	47,890(63.9)	52,961(58.2)
계	16,032(100.0)	74,903(100.0)	90,93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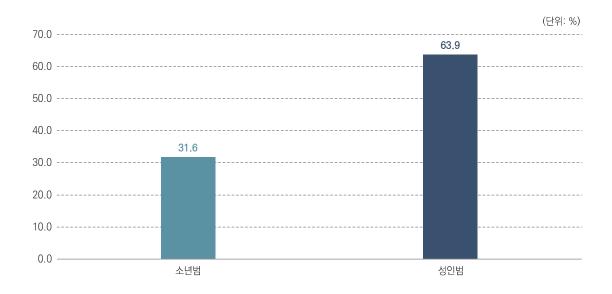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기타이욕이 26.5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우발적(21.0%), 생활비 마련(14.6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유흥/도박비 마련(소년범 4.4%, 성인범 1.0%)이나 호기심/ 유혹(소년범 20.0%, 성인범 2.0%)에 의해서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


표 36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741
	소년범	성인범	계
생활비 마련	1,709(10.5)	11,508(15.5)	13,217(14.6)
유흥/도박비 마련	721(4.4)	737(1.0)	1,458(1.6)
기타이욕	3,900(24.1)	20,114(27.1)	24,014(26.5)
호기심/유혹	3,239(20.0)	1,455(2.0)	4,694(5.2)
우발적	3,004(18.5)	16,007(21.6)	19,011(21.0)
기타	3,636(22.4)	24,429(32.9)	28,065(31.0)
계	16,209(100.0)	74,250(100.0)	90,459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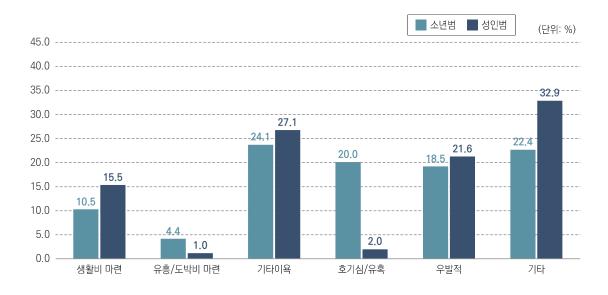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7. 사기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3년 총 354,055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2.4%, 여성이 37.6%였다.